

II. IMF 경제 정보

1. 금주의 정책 이슈

○ 외평채 발행의 명과 암

- 정부는 4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(1)를 뉴욕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음
 - 당초 30억 달러를 계획했는데 매수 주문이 크게 늘어 10억 달러를 초과 발행함
 - 금리는 TB(Treasury Bond; 美재무부채권)를 기준 금리로 하여 5년물에는 3.45% 포인트를 가산한 8.95%, 10년물에는 3.55%포인트를 가산한 9.05% 수준임
 -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은 외환 보유고를 확충하고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
- 반면 과도한 이자 부담과 거래 조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음
 - 외평채에 대해서 120억 달러에 이르는 매수 주문이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높은 금리 이익에 의한 것으로, 발행 금리가 너무 높았다는 의견이 있음
 - 최근에 유통되기 시작한 외평채는, 5년만기물의 경우 13일 현재 "TB+2.82%" 수준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이를 반증하고 있음(유통 채권의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의 상승을 의미)
 - 한보 부도 이전에 발행하던 국채가 "TB+0.3~0.4%" 였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이자 부담은 연간 1,700억 원 가량이고, 만기시까지 부담해야 할 총 이자는 1조 5,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됨
 - 외평채에 대한 외국의 수요를 좀 더 정확히 전망할 수 있었다면, 낮은 국가 신용등급에 의한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금리를 다소 낮출 수 있었을 것임
 - 더구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점차 상향 조정될 전망인데, 콜옵션 등의 조건이 부여되지 않아 채권 만기까지 금리 부담을 축소할 수 없음
 -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들도 외국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추진할 것인데, 정부의 외평채 금리가 기준 금리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됨
- 정부에서도 추가 발행할 외평채에 대해서는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
 -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외평채 발행 규모는 약 90~100억 달러 가량
 - 현재 외환 보유고 확충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외평채 추가 발행은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 된 이후에 진행한다는 방침임

(정 반 석 bsjung@hri.co.kr ☎724-4045)

1)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간접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조성한 기금을 「외국환평형기금(Exchange Equalization Fund)」이라고하고, 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「외국환평형기금채권」을 발행하는 것임